
	<h1>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h1>	
소속		
성명		
참가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가기간		
	2024 하계 일본 시즈오카 대학 단기연수	
	2024.08.01~2024.08.09	
1. 현지연수 파견 전 절차		
<p>- 파견 전, 국제협력팀을 통해 신청 후 별도로 교육을 받아 간단히 프로그램 일정과 소요 경비와 절차 등을 안내 받습니다. 이후 온라인 ZOOM을 통해 현지 대학교 교직원 및 참가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안내사항을 다시 한번 전달 받고 좀 더 자세한 활동을 안내받습니다.</p>		
2.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교육과정 위주로 기술)		
<p>- 시즈오카의 각종 문화와 예술, 산업 등을 현장체험하는 한편, 시즈오카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작문 실습과 자신이 사전에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하여 학생들과 서로 질문을 주고 받고 현장체험을 나갈 곳에 대한 사전 학습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활동해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현지 학생과 함께 협력하여 팸플릿 (혹은 영상)을 제작하여 발표를 준비, 참가 학생들과 시즈오카 대학 교직원분들 앞에서 발표하여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p>		
3. 참가 성과		
<p>현지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도 교류하며 국제 역량을 성장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일본어 회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는 열정과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p>		
4. 본인 소요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p>프로그램 비용: 7만 3천엔 (약 67만원)(숙박비, 보험료, 박물관 입장료 등 포함)</p>		
<p>항공료: 약 35만원 (2인 왕복 기준)</p>		
<p>기타비용: 8천엔 (약 7만 5천원)(기타 현장체험 학습 활동 및 일정 중 식사 비용 등 포함)</p>		
<p>통신비: 약4만원 (eSIM 13일 데이터 무제한 기준)</p>		
5.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p>짧지만 아주 귀중한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에 관심있는 학생들도 보였고 서로 아주 의미있는 교류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짧지만 강렬했던 이번 경험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소중한 밑거름 삼아 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싶어졌습니다.</p>		

6.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1) 학업계획

이후 조금 더 제 전공인 일본어에 집중해 관련 자격증 취득 및 해외 교환 학생 파견 등에 응하여 더 성장하고 이번 일을 헛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2) 진로계획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만나보며 한국어를 가르치는 진로도 고민하게 되었고, 현지 대학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과 만나보며 현지 유학 등의 진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깊고 심층적인 고민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 향후 참가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모든 교직원분들과 학생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혹시 자신이 내성적이라거나 일본어 회화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두 친절하고 상냥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적응을 돕게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학생들과 교류하고 여러 모습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8. 기타사항

.

9. 활동사진(2장 이상 사진 설명 필요)



일본 시즈오카 대학 모습



일본 시즈오카 대학 강의실 내부 모습



묵었던 시즈오카 국제 교류회관 기숙사

* 귀국 후 1주일 이내에 국제협력팀에 제출 바랍니다.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소속	
성명	
참가 프로그램	2024학년도 일본 시즈오카대학 하계 단기연수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가기간	8월1일 ~ 8월 9일
<p>1. 합격 이후에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메일로 온 주소에 비행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후 학교에서도 간단한 사전교육을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시즈오카 대학교의 선생님께 온라인으로 사전교육을 받습니다. 이 때는 메일로 언제 교육을 진행하는지 알려주고 참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메일로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날에 사전교육을 받습니다.</p> <p>2. 먼저 참가하는 유학생에게 서포터즈가 붙습니다. 서포터즈는 대부분 일본인이었고, 지금 시즈오카대학교에 유학생인 베트남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친절해서 이해를 못 할 때는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고 제가 단어를 몰라서 찾을 때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실력이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정말 좋았습니다. 시즈오카시에 역사라던가 산업과 산업의 역사 등 그 장소에 직접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이 일본에 오기 전에 프로그램에서 직접 갈 장소에 대해 발표준비를 시키고 그 장소에 직접 가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듣고 흥미가 생기기도 했습니다.</p> <p>3. 참가성과 중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회화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긴장하면서 말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만큼은 아니지만 맘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하고 싶은 말을 금방금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시야가 넓어졌습니다.</p> <p>4. 합계= , 프로그램 비용=80,000엔, 항공료=나고야왕복으로366,800원, 보험료=24,400원, 숙박비용=38,936원(프로그램 시작 하루 전에 가서 호텔에서 하루 숙박함), 식비=20,000엔 교통비=8,920엔+인천까지왕복고속버스=79,800원 이외=12,918 엔</p> <p>5. 처음에는 약간 귀찮기도 했고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어서 참가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가하고 나서는 서포터즈 모두 너무 착해서 먼저 다가와 주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너무 좋아서 일본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비도 보고 마츠리도 보고 정말 재미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8박 9일동안 매일 일정이 있어서 뻘뻘하다고 느끼기도 했고 프</p>	

로그래 기간이 8박9일이라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모두와 금방 헤어져버려서 아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참가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정이 끝난 뒤 저녁에는 매일 같이 밥을 먹던가 노래방도 가던가 재밌게 놀았습니다. 덕분에 잘 맞는 일본인 친구와 베트남 친구도 생겼고, 두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6. 1)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일본을 더 좋아하게 됐고, 일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일본어를 이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습니다.

2)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에게 잘 맞는 직업은 공무원이라 생각해서 공무원을 하고 싶습니다.

7. 말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느정도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으면 정말 괜찮습니다. 서포터즈 모두 착해서 천천히 말하거나 이해를 잘 못 해서 두 번 말하는 경우라던가 문법이 조금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가만히 끝까지 말을 들어주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깐 와서 대화하는거에 겁먹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8. 날씨는 여름이어서 덥고 습했습니다만, 기온 자체는 제가 갔던 날을 기준으로 광주는 35도였고 시즈오카는 34도였습니다.

